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 보탠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2020. 11. 6.

-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등 손잡고 다양한 상생 기획전 선보여
- **'힘내요 대한민국 시리즈'도 계속 이어가 어려운**
  상황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될 것

2020. 11. 6. 서울 – 쿠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다. 쿠팡이 15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지역 농어민들이 판매하는 우수 상품을 한곳에 모은 다양한 상생 기획전을 선보인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신선한 지역 해산물을 로켓배송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진행한다. '코리아 수산페스타'에서는 다시마, 미역부터 제철 해산물인 생굴, 오징어, 문어, 새우까지 현지의 신선함을 담은 해산물들을 전국에 새벽배송 또는 익일배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전상품 20% 할인쿠폰(최대 5천원 할인) 혜택도 주어져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손잡고 제주도
특산물, 제주지역 가공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제주의 신선함을 한곳에' 기획전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
현지에서 생산된 귤부터 제주 고등어, 제주당근 주스, 우도 땅콩
초코파이 등 제주도 지역 인기상품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농식품 우수상품 모음전'에는 전국 165개
지역 농공상기업의 300여 개 우수 제품을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쿠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힘내요 대한민국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북, 대구, 충북, 충남, 제주, 경남, 광주 등 각 지자체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지역별 중소상공인의 상품을 한곳에 모아 쿠폰, 즉시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인다. 쿠팡이 지역 업체의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매출 증대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메인
광고면 등을 활용해 마케팅도 지원한다.

쿠팡의 이런 다양한 지원 활동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 9월에 발행한 '2020 힘내요 대한민국
리포트'에 따르면 쿠팡과 거래하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지역별 매출 성장률이 평균 100%를 웃돌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도 영세 상인들이 실제 쿠팡을 통해 디지털에 진출에 성공하고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음을 보여줬다.

쿠팡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지역업체의 상품들이 더 많은 고객과 만나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앞으로도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